

부산시, ‘새뜰마을사업’ 3곳 선정… 국비 93억 확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33억 투입
지난해 이어 올해도 3곳 선정
열악한 주거환경·삶의 질 개선

부산시는지방시대위원회의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결과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9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동구 범일1동, 부산진구 범천2동, 사하구 신평1동이다. 이들 지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3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26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17곳이 선정됐다. 특·시가



부산시청.

/부산시

운데서는 부산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이어 올해도 3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동구 범일1동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에 의해 계획 없이 형성된 산복도로 급경사 주거지인 1405-1번지 일원이다. 재해방지 안전시설 및 위험 축대 정비, 경사지 골목 정비 및 마을공원 조성, 노후주택 및 빈집 정

비 등이 추진된다.

부산진구 범천2동은 산복도로변 노후주거지인 1129-10번지 절골·미실마을 일원이 대상지다. 안심마을길 및 방재·공동체 마당 조성, 경로당 신축 및 소화전 정비, 노후주택 및 공·폐가 정비 등이 진행된다.

사하구 신평1동은 태풍 이재민과 충무동 진개장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



7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협력

㈜에이치에너지 등 민간기업과
지붕형 태양광 사업 확산 등 ‘맞손’

경북도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함일환 ㈜에이치에너지 대표, 광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대표, 신도철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사업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

았다.

㈜에이치에너지는 경북에 본사를 둔 기후테크 기반 기업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지붕형 태양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에이치에너지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성장을 지원해온 국내 대표 성장형 PE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공성·수익성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 설계·설치·운영 등 전반적 시스템 구축, ▲스티인베스트먼트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사업성 검토, 펀드 설계 및 투자자 모집 등을 각각 맡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대경경제자청, 1600억 규모 투자유치

(주)카팩발레오, BSA생산시설 건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영천시청에서(주)카팩발레오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카팩발레오 신순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남익 경상북도 공행투자본부장, 최기문 영천시장, 문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카팩발레오는 향후 5년간 총 1600억원을 투자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BSA)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최소 1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주)카팩발레오는 PHC그룹의 계열

사인 다대로83번안길 일원이 사업 대상지다.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및 노후 축대 정비, 마을회관 및 골목정원 조성 등 노후옹벽 경관개선, 노후주택 및 공·폐가 정비 등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공모 사업에 총 26곳이 선정됐으며 총 1157억원을 투입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주변엔 아직 경제 성장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돼 정주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남아 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경남 도내 18개 시·군 전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 7개월 만의 요금 조정이다.

특히 요금 조정은 버스업체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요금 조정에 따라 일반인(성인)의 경우 현금 이용 시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카드 이용 시 1450원에서 1650원으로 각각 200원이 인상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총력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여름철 해양 수온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와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7월부터 10월 사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섭취하거나 피부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구토, 고열, 오한, 복통,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24시간 내에 나타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의령군

공모사업 역대 최대실적 달성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은 의령군이 공모 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모 사업 유치 금액은 2021년 47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약 3배인 1348억원을 돌파했고, 2023년 1671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2년 연속 1000억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의령군은 예산 최초 5000억원 시대를 개막하고, 함께 출산율과 복지 만족도에서 경남 1위를 기록했다.

또 청년 귀농인 최대 전입과 단일 기업 최대 규모 투자 유치 확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15개 마을 생활여건 개선한다

농어촌·도시에 각 16.5억·33억 지원

경남도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1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대면·현장평가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으로 경남도 15개 마을을 포함, 최종 102개소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북, 전남에 이

어서 번째로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사업지구인 15개소는 농어촌 지역 14개소와 도시 지역 1개소로 구분된다.

농어촌 지역 선정 마을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6억 5000만원, 도시지역은 5년간 최대 33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림리 요지’ 이후 35년만의 성과

영암군의 고대 마한 유적이 7일 ‘영암시종고분군’의 이름으로 영암군내 동리 쌍무덤과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이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영암군에서는 1989년 ‘구림리 요지’ 사적 지정 이후 이뤄진 35년 만의 성과로서, 지역사회는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을, 고대 마한을 포함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맞고 있다.

영암시종고분군은 5C 중·후반~6C 초에 조성된 유적으로, 전통 옹관묘에서 대형 방형 분구 석곽묘·석실묘로 변화하는 마한의 매장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대의 토목 기술과 공동체 조직 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중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 전경.

/영암군

요 고고학 자료다.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은, 2023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함께 영암군의 마한 역사문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